

환경부
보도참고자료

- ☐ 2004. 9. 배포
- ☐ 사진 없음
- ☐ 총 2 쪽

감사관실 중앙환경 감시기획단	김철우 단 장 김충배 사무관	전 화 (메일)	2110-6537 kim12@me.go.kr

환경부, 『추석』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

- ◇ 환경오염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3,522개 취약시설 중점지도점검
- ◇ 주요 상수원수계, 공단주변 등 특별순찰감시반 투입

☐ 환경부는 『추석』 연휴 중 대부분의 산업체와 행정기관이 휴무하게 됨에 따라 평상시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취약해질 수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과 시설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을 전개한다.

-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 16개 시·도 주관으로 『추석』 연휴를 전·후 하여 9.20부터 10.3까지 13일간 실시된다.
- 중점 단속대상은 상수원지역의 오염원과 하·폐수 처리장 등 환경기초 시설, 유기용제·유독물·악성폐수 등의 유독성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, 도축·도계장 등이며,
- 이들 시설에 대한 중점지도·점검, 순찰감시 강화,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다각적인 감시방법이 동원된다.

☐ 이번 특별 감시활동은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게 된다.

- 『추석연휴』 전 : 9.20 ~ 9.24(5일간)

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680명의 특별단속 요원을 투입하여 3,522개소의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시설을 중점지도·점검하고, 일선 환경관서의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(345명)은 폐·하수처리장 등 945개소의 환경기초시설 적정가동 여부를 현장 확인·점검한다.

○ 『추석 연휴』 : 9.24 ~ 9.29(5일간)

하루 평균 432명의 특별감시요원이 상수원수계, 공단주변하천 등 744개소를 선정하여 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, 환경부와 전국 각 시·도는 추석연휴 기간중 특별감시활동을 지휘·지원하기 위한 상황실을 설치·운영한다.

○ 『추석 연휴』 후 : 9.30 ~ 10.2(3일간)

연휴동안 생산공정 중단 등으로 환경시설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영세한 중소기업체에 대해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.

□ 환경부는 특별감시 기간동안 각 시·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경오염 예방 및 방지시설가동 등과 관련한 상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.

□ 그리고 기업체에서의 폐수무단방류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는 국번없이 128전화(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를 누르고 128)로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

○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『www.me.go.kr의 공지사항』 란에 게재되어 있으며,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.